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청년 금융교육 추진 현황

지난 연말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의 금융교육은 손에 잡히는 교육이어야 하며,
특히, 미래세대인 2030 청년에 집중하여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종잣돈을 마련하고
적은 돈이라도 직접 투자하여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② ISA 혜택 확대,
그리고 ③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부터
올해 처음 출시된 ④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핵심도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에 있습니다.

- ① 청년도약계좌 :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하는 적금
- ② ISA 혜택확대 : 예금·펀드·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계좌(ISA)의 비과세한도(200만원) 및 납입한도(연 2천만원)를 상향
- ③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를 유도하여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
- ④ 개인투자용 국채 :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된 저축성 국채로 만기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며, 분리과세(14%) 적용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금융교육입니다.

3.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청년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청년, 금융을 나답게”,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소재로 삼아
금융과 친해지고, 금융기초를 익히며
스스로의 금융생활을 점점해 봄으로써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금융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당국이 앞장서서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 우선, 금융과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금융고민 상담소 운영 등
금융이 먼저 청년에게 다가감으로써
막연하게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없애고,
“배우면 나도 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과 금융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역량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함으로써
청년들이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금융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카드를 발급받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소득에 맞는 지출관리, 신용 관리의 필요성 등을 안내하고
군 입대 장병에게는 청년도약계좌 등 목돈 만들기를,

주택금융 상품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과 등기부 등본 읽는 법 등을
함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삶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시점을 포착하여
시기별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적어도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금융교육 활용법을 알려주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신만의 금융습관을 토대로
건강한 금융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저축하여 종잣돈 만들기,
적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투자 시작해보기,
관심가는 금융분야에 대해 공부하기와 같이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금융교육 인증 챌린지 등을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서
건강한 금융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속도를 깨닫고
건강한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관과 단체들은 물론이고,
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청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금융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각 업권별 특성을 살린 금융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국도 'e-금융교육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4. 당부 및 마무리 말씀

금융교육은 그 어떤 정책보다
긴 시계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과 이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